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 절반은 'MZ 세대'

158만5000명 빅데이터 분석...10~20대 생태관광 수요 많아 67% 광주·전남·전북서 찾아...박람회 기간 맞춤 서비스 활용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한 달여 앞두고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관광객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방문자 67%는 호남에서 이곳을 찾았고, 절반 이상(51.3%)은 10~30대인 'MZ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해 관광 전략과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158만5000명의 이동통신 자료를 분석해보니,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방문객이 가장 큰 비중인 5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8.0%)와 전북(3.3%) 등 호남에서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비율은 66.8%로 늘어났다.

경기도가 8.4%로 전남의 뒤를 이었고, 서울(7.5%), 인천(1.8%) 등 수도권 비중은 17.7%로 집계됐다. 경기도 안에서는 부천시와 화성시 방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외 지역에서 온 방문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니 10~30대 MZ 세대 비중은 51.3%로 절반이 넘었다. 20대 비중이 20.0%로 가장 많았고, 30대(18.9%)→40대(17.6%)→50대(16.7%)→10대(12.4%)→60대(9.9%)→70대 이상(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순천지역 안에서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은 10대(22.9%)와 40대(18.1%) 순으로 많았다.

순천 지역민 대다수가 가족단위로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원박람회장에 관광객이 몰린 시기는 봄꽃이 만개한 4월과 가정의 달 5월, 가을 축제가 곳곳에 풍성한 9~10월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56%, 여성 방문객 44%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4월 1일~10월 31일) 박람회장 방문 관광객의 모바일 빅데이터를 수집해 관광객 추이와 밀집 지역, 혼잡시

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올해 30개국 800만명이 정원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객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목표에서다.

순천시 디지털정책과와 통신사업자, 박람회조직위는 업무협의를 거쳐 정보수집 구간과 실시간 관람객 집계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시스템을 가동한다.

관광객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주요 지점 방문객 수와 일별, 월별, 연령별, 성별, 시간대별, 시도별, 외국인 방문객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며, 같은 구역 안에서 반복적으로 측정되는 방문객과 분석지역 주변 순천시민은 제외한다. 외국인은 통신사 로밍 자료를 기반으로 측정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박람회 관광객의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관광 동향과 현안 분석을 할 방침"이라며 "이는 맞춤형 관광 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관광객·시민 안전대책 수립에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 절반 이상(51.3%)은 10~30대로, 젊은 MZ세대의 생태관광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 일대. <순천시 제공>

새꼬막 양식장 피해 주는 오리떼, 드론으로 쫓아낸다

고흥군·개발업체 실증시험 기술 보완해 조만간 상용화



고흥군이 유해조류 퇴치 스마트 드론을 개발해 남양면 선정마을 새꼬막 양식장 일원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유해조류 퇴치 스마트드론을 개발, 실증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실증은 군소재 드론센터 입주업체와 함께 AI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했으며 남양면 선정마을 새꼬막양식장 일원에서 실시했다.

선정마을은 연간 새꼬막 생산량이 4000t에 달해 전남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새꼬막 주산지다. 매년 수확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오리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블리자 서비스사업으로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확보, 오리떼를 식별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리떼를 쫓는 드론을 개발했다.

조류퇴치 드론을 개발한 마린로보틱스 서경필 대표는 "오리를 인식하는 AI의 인식률을 높이고, 드론에 대한 오리 학습효과로 퇴치 효과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기술을 계속 보완·개발해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오리떼 인식 AI시스템 및 퇴

치 드론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바지락 등 타 품종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구례군, 거동 불편 노인에게 주 2회 식사 배달

구례군이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가정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등이다.

구례군은 구례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의 영양관장량을 고려한 다양한 밑반찬을 준비해 주 2회 읍면별로 배달할 계획이다.

화요일은 110인분, 목요일은 100인분을 준비

해 읍면 맞춤형복지팀장 등이 가구별로 직접 방문배달하면서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불편하거나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해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고, 생활 속 불편이 없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올 전기자동차 990대 보조금 지원

승용차 1530만원·화물차 2050만원

광양시가 올해 모두 990대에 달하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모두 990대이며, 지원 규모는 191억원이다.

전기 승용차(초소형 포함) 500대와 전기 화물차(소형·초소형 포함) 200대, 전기버스 12대, 전기 이륜차 80대, 전기 굴착기 10대, 수소 전기차 188대 등이다.

지원금은 차종별로 다르다.

전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30만원, 전기 화물차(소형)는 2050만원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수소차는 현대 넥소 차량 기준 34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지역민은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홈페이지(무공해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관내 법인·기업이다. 전기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 1대, 수소차는 개인 1대, 법인·기업 3대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93, 3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는 지난해까지 모두 친환경 자동차 2087대에 대한 보조금 322억원을 지원했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219대(2억8100만원)를 지원했고, 공용·부분 공용 충전기는 484기(급속 63기·완속 421기)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학교급식 139개 품목 공급가격 결정

곡성군이 최근 총 139개 품목의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곡성군은 '2023년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공급 가격 결정협의회'를 열고 학교 급식 식재료 가격을 결정했다.

이 협의회는 곡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업지침에 따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된다.

회의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될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과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식재료 등의 가격을 결정한다.

회의에는 군 관계자와 교육지원청, 보육시설 대표, 학교 영양 교사, 공급업체, 생산자 단체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4월까지 학교급식에 공급될 친환경 쌀 등 총 126개 품목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 품목에는 비교 조사된 시장 가격과 다른 시·군 가격, 업체 제시 가격 등이 반영됐다. 또 비유전자변형식품 식재료 11개 종류의 13개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 가격을 결정했다. 이들 13개 품목은 연중 동일 가격으로 공급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